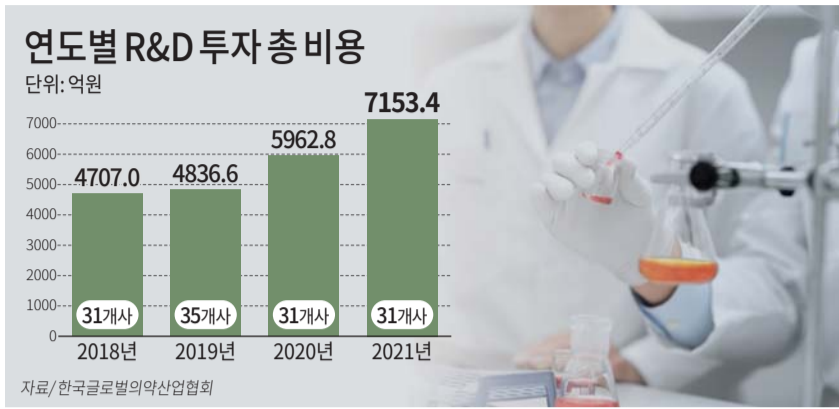


국내 진출 글로벌 제약사, 지난해 R&D 투자비용 20% 늘려

31개 글로벌 제약사 조사 보고서
 지난해 총 비용 7153억원
 코로나이후 임상연구 활발
 국내 임상 인프라 지속 확대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난 한해 연구개발(R&D) 비용으로 715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 늘어난 규모다.

한국글로벌의약품협회(KRPPIA)는 국내 진출한 31개의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한국 글로벌의약품협회 R&D 비용과 연구인력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에서 2021년 임상연구에 투자한 R&D 총 비용(해외 본사에서 직접 외주한 R&D 비용 제외)은 약 715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5962억원)보다

20% 늘어난 규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활발한 임상연구 활동으로 총 투자규모가 매년 20% 이상씩 늘었다. 지난 2019년 4836억원이었던 임상 연구 비용은 지난 2020년 5962억원으로 22.5% 늘고 지난해 다시 20% 늘었다. 2021년 진행된 임상연구는 총 1590건으로 전년 대비 약 6.1% 늘었고,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임상 중 항암제 임상비율이 66.3%로 가장 높았

고, 희귀질환 임상연구 비율은 9.7%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14건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연구가 진행됐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 임상 인프라도 지속 확대했다. 2021년 초기 임상에 해당하는 1~2상 시험의 증가율이 3상 후기 시험 증가율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1년 1~3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수는 총 1만6342명이며,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 참

여한 31개사의 R&D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2021년 기준 총 1922명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증·희귀난치성 질환부터 새로운 감염질환까지 국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옵션 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신약 허가와 약가 결정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PPIA 관계자는 "하지만 글로벌 신약에 대한 한국의 임상시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국내 도입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내 환자들의 최첨단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 및 급여·약가 결정에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R&D 투자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아제약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크림' 출시

동아제약이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파티온이 '노스카나인 트러블크림(사진)'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누적 판매 10만 개를 돌파한 파티온의 트러블 집중 케어 '노스카나인'의 제품 라인업이 확대 강화됐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은 단일 세라마이드 대비 2.8배 진정 효과가 강화된 특허받은 5겹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돼 무너진 피부 장벽으로 인해 잠재돼 있던 트러블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부 보습과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임상 연구센터를 통해 3대 트러블 자극(마스크·물리적·화학적)에 대한 진정 시험을 완료하였고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민감 피부 자극 지수가 0.00인 저자극 인증을 받아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동아ST,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기술 수출

튀르키예 글로벌 제약사 폴리파마 'DA-3880' 라이선스 아웃 계약

동아에스티가 튀르키예(구 터키) 기업, 폴리파마와 2세대 빈혈치료제 다베포에틴-알파바이오시밀러 'DA-3880'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아웃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DA-3880의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독

점 개발 및 판매권을 폴리파마에 이전한다. 또 계약금과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을 받으며, 완제품 독점 공급을 맡는다. 상업화 후 생산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CDMO) 전문 기업인 에스티젠 바이오가 담당한다. 폴리파마는 DA-3880의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임상 개발 및 허가, 판매를 담당한다. 계약금과 마일스톤 및 공급에 따른 매

출은 양사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다. DA-3880은 2세대 빈혈치료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로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및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2014년 동아에스티는 일본 삼화화학연구소(SKK)와 DA-3880의 일본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DA-3880은 2019년 일본 내 제조판매 승인을 획득한 후 2020년 80

억, 2021년 12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일본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폴리파마는 50개국 이상의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튀르키예 제약사다. 미국, 유럽, 브라질, 멕시코 등에 진출해 500개 이상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허가 경험을 쌓은 저력 있는 제약사다.

/이세경 기자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기침제제 '용각산쿨' 신규 광고

보령 자회사인 헬스케어전문기업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생약 성분 진해거담제 '용각산쿨'의 새로운 광고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규 광고는 다양한 목의 증상으로 인해 겪는 곤란한 상황을 통해, 일상적인 목 관리의 중요성과 용각산쿨의 빠른 효능·효과를 직관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목에 곧바로 '단도직입'이라는 키메세지를 통해 용각산쿨의 6가지 생약성분이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해 목의 다양한 증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소하는 효능·효과를 재치있게 담아내고자 했다.

용각산쿨은 기존 용각산에 들어 있는 주요 생약성분인 길경가루, 세네가, 행인, 감초의 함량을 높이고 인삼, 아신약 성분을 추가했으며,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1회용 스틱형 제품이다. 기침이나 가래 외에도 목 통증과 부기, 목의 불쾌감, 목쉼 등 다양한 인후 관련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 가지 맛으로 젊은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세경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장 재생치료제 국제학회서 연구결과 잇따라 발표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난 10월 5~8일 제주 IC C에서 열린 이대조직공학재생의학회 세계 학술대회(TERMIS-AP 2022)에서 장 재생치료제 연구 결과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한 '조직 재생을 위한 오가노이드' 세션에서 돼지 모델에서

성인 조직유래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 치료제(ATORM-C)가 난치성 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밖에 지난 4월 생체재료학지에 게재된 편도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모델 개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바이러스제 개발 전략을 소개했다. /이세경 기자



유재두 이대목동병원 병원장과 배신규 엠디문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여섯번째)가 지난달 31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 특허 기술 이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엠디문 장질환 치료 기술 '맞손'

특허기술 이전 업무협약 체결

이대목동병원이 바이오드론 플랫폼 개발기업 엠디문과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 특허 기술 이전 업무협약을 지난 10월31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IBD는 원인 불명의 설사, 혈변이 계속되는 난치질환으로 최근 젊은 사람들의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며 많은 약물이 개발되고 있지만, 미충족수요가 높은 질환 영역이다.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문창모 교수 연구팀은 '중간엽줄기세포 유래

베지컬'의 IBD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동물실험 데이터를 확보하며 IBD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우수함을 증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간엽줄기세포 유래 베지컬 치료제'가 생체 외 및 생체 내 연구에서 결장 세포의 세포 증식능을 증진시키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세포 이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 교수 연구팀의 IBD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 기술을 엠디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세경 기자

LG생전 빌리프, '허브 부케 젤 클렌저'

LG생활건강의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에서 15가지 허브와 비타민을 담은 '허브 부케'를 함유, 단 한 번의 세정만으로 깔끔한 클렌징을 도와주는 '허브 부케 젤 클렌저(사진)'를 출시했다.



미끈거리는 사용감을 개선해, 쫄쫄하고 조밀한 거품이 산뜻하고 개운한 마무리감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탱글한 젤 텍스처를 펄펄 타입 용기에 담아 씻은 손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이번 제품은 피부와 유사한 pH(산도) 약산성 젤 클렌저로,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장벽 유지 효과를 부여해 데일리 저자극 클렌징이 가능하다. 약산성 클렌저 특유의

삼양식품 '우돈사골 곰탕면'

삼양식품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따뜻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신제품 '우돈사골곰탕면(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우돈사골곰탕면은 우사골로 국물을 내는 사골곰탕과 달리, 우사골과 돈사골을 모두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고압 추출방식으로 우사골의 깊은 맛과 돈사골의 구수함을 고스란히 담아 진한 국물을 완성했다. 또한 사골곰탕에 소면을 곁들여 먹는 점에 착안해 면의 굵기를 얇게 하고 국내산 쌀가루를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는 면발을 구현했다. 후레이크에는 조미비프, 후추, 대파 등을 풍성하게 넣어 국물에 감칠맛을 더하고 곰탕 특유의 잡내를 잡아 풍미를 더욱 좋게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